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10. 4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**美, 백인우월주의에 빠져 전력망 파괴 계획한 여성에게 징역 18년 선고**
 - 9.26 언론은 美 법원이 네오나치단체 지도자와 공모해 흑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도시(볼티모어)의 변전소 공격을 모의한 백인우월주의 성향의 미국 여성 「클렌다니엘(36세)」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보도
 - ※ 피고인은 네오나치단체(아툼와펜)를 설립하여 폭발물 테러 혐의로 5년간 복역한 러셀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이후 변전소 5곳에 대한 공격을 모의
- **美,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폭발물 터져 5명 부상**
 - 9.26 언론은 美 캘리포니아주 남부 산타마리아 법원 로비에서 20대 남성이 던진 가방이 폭발하여 5명이 다쳤으며 용의자는 사건 직후 체포되었고 테러나 정치적 폭력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
 - ※ 용의자는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리고 기소 사실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심문하는 과정 앞서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인부로 법원에 왔다 범행을 벌였으며 용의자를 살인 미수와 폭발물 소지·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 예정
- **미국, 시리아 공습으로 극단주의 무장세력 37명 제거**
 - 9.29 美 중부사령부는 지난 16일과 26일에 두 차례 공습을 통해 시리아에서 ISIS와 알카에다 연계 무장세력 총 37명을 사살했으며, 공습으로 해당 지역에서 테러단체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저하했다고 발표

중 동

- **이란, 남동부 접경 지역에서 테러 공격으로 6명 사망**
 - 10.1 언론은 이란 시스탄-발루체스탄주에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(IRGC) 사령관을 포함한 최소 6명이 테러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으며,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자이쉬 알-아들의 주 활동지역이라 부언

- 헤즈볼라 신임 수장에 「사피에딘」 선임
 - 9.30 언론은 헤즈볼라 새 수장에 2인자로 관측되던 「사피에딘」 이 선임됐다고 보도하였으며, 同人은 헤즈볼라가 창설될 때부터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미국·이스라엘을 향해 적대적 행위를 주도해 왔다고 부언
 - ※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운이 최고조에 이르는 만큼 역내 체류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현지 상황 지속 모니터링 필요
- 이라크, 테러혐의로 유죄판결자 21명 교수형 집행
 - 9.26 언론은 이라크에서 ISIS 테러단체 소속원 및 지하디스트의 일원으로 과거 해당 국가에서 활동하다 테러혐의로 체포되어 있던 21명에 대해 교수형을 집행했다고 보도
 - ※ 언론을 통해 이라크에서 ISIS등 테러단체 소속원들이 지속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, 우리 국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 관심이 요망됨

아 · 태평양

- 페루, 미상의 범죄조직에 한국인 납치된 후 하루만에 구출
 - 9.26 언론은 페루 수도 리마에서 현지 범죄조직에 한인 1명이 납치됐다가 하루만에 구출되는 사건이 발생, 同 국가에서는 코로나 이후 경제난으로 지속 납치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도
 - ※ 현지 우리 국민 1,230명으로 同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필요
- 韓, ‘테러방지법 1호’ 시리아인 무죄판결 대법원에서 파기
 - 9.27 언론은 이슬람 극단주의 ISIS를 추종하는 활동과 함께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과거 증거 부족 사유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었다고 보도
- 韓, ‘수서역, 광명역 폭파’ 협박범 실형 선고
 - 9.30 언론은 '21년 “수서역을 폭파하겠다”라고 허위 신고한 20대가 집행유예 기간 中 “광명역 폭파하겠다”라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
 - ※ 다중이용시설 등에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바,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언론 보도 사항 대국민 홍보 필요

파키스탄, 종교 행사 중 자폭테러

- '23.9.29 파키스탄 발루치스탄州 마스통에서 ^{무함마드의 탄신일} 마울리드를 축하하는 기념행사 중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, 60여명이 사망하고 120여명 부상
 - 同 지역은 파키스탄 탈레반(TTP)과 이슬람국가(ISIS)의 충돌이 잦은 지역이나, 사건 직후 TTP는 테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
 - 한편, 경찰은 테러 위협을 사전에 인지했으나, 발루치스탄內 테러 대부분은 시아파 행사에서만 발생했다는 이유로 방심, 테러 방지 실패
 - 보안 당국과 전문가들은 同 테러 前 파키스탄 전역에서 4건의 테러 (9.14, 9.7, 8.26, 8.17)를 자행한 ISIS 연계 세력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
 -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파키스탄 정부와 희생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“종교 행사 중 테러가 발생한 것은 혐오스러운 일”이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
- ⇒ 최근 파키스탄 內 종교 행사 및 유명 불교 유적지에서 외국인을 겨냥한 테러('24.9.22)가 발생하는 등 대상·장소가 다양화되고 있어 ^{'23년 기준 879명(재외동포청)}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여행객·재외국민 보호에 만전 필요
- ※ 파키스탄은 이슬라마바드(수도), 라호르(우리 국민 다수 거주), 길깃 등 7개 황색경보(2단계, 여행자제)를 제외한 전역이 적색경보(3단계, 출국권고) 지역

< 마울리드(Mawlid) >

- (의미)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신일
 - (기념일) 예언자의 탄신일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니파에서는 이슬람력으로 3월에 해당하는 라비 알 아우왈의 12일로, 시아파에서는 같은 달 17일로 지정하여 기념
 - (기념방법) 종파나 지역마다 다르나 대체로 모스크에서 기도문을 낭송하며 탄생을 축복
- ※ 무함마드의 탄신일을 기리는 것은 코란이나 하디스에도 근거가 없으나 대부분의 이슬람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성대하게 축하